D 511 | 2021. 6. |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21년 상반기 FTA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511

2021년 상반기 FTA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1. 6.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차 례

제1장 개요

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배경 및 목적 ····· 1
2. 이행상황 점검 개요 ····· 3

제2장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별 이행상황 점검

1. 축산경영종합자금 ····· 7
1.1. 사업개요 ····· 7
1.2. 사업 이행실적 ····· 8
1.3. 이행상황 점검 ····· 10
1.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12
2. 원유소비활성화 ····· 13
2.1. 사업개요 ····· 13
2.2. 사업 이행실적 ····· 14
2.3. 이행상황 점검 ····· 15
2.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16
3. 농기계 임대 ····· 17
3.1. 사업개요 ····· 17
3.2. 사업 이행실적 ····· 18
3.3. 이행상황 점검 ····· 20
3.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2
4. 임산물 수출 ····· 23
4.1. 사업개요 ····· 23
4.2. 사업 이행실적 ····· 24
4.3. 이행상황 점검 ····· 25

4.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27
5. 수출인프라강화 ····· 28
5.1. 사업개요 ····· 28
5.2. 사업 이행실적 ····· 30
5.3. 이행상황 점검 ····· 31
5.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 33

제3장 점검결과 요약

1.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결과요약 ····· 35

표 차례

제1장

〈표 1-1〉 202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조사대상 및 내용 ····· 4
〈표 1-2〉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항목 ····· 5
〈표 1-3〉 점검 내용별 작성 방법 및 참고자료 ····· 6

제2장

〈표 2-1〉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개요 ····· 8
〈표 2-2〉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이행실적 ····· 10
〈표 2-3〉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 12
〈표 2-4〉 원유소비활성화 사업개요 ····· 14
〈표 2-5〉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이행실적 ····· 14
〈표 2-6〉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 16
〈표 2-7〉 농기계임대 사업개요 ····· 18
〈표 2-8〉 농기계임대사업 이행실적 ····· 20
〈표 2-9〉 농기계임대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 21
〈표 2-10〉 임산물수출 사업개요 ····· 23
〈표 2-11〉 임산물수출사업 이행실적 ····· 25
〈표 2-12〉 임산물수출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 27
〈표 2-13〉 수출인프라강화 사업개요 ····· 29
〈표 2-14〉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이행실적 ····· 31
〈표 2-15〉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 33

제3장

〈표 3-1〉 2021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결과 요약 ····· 3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 2
〈그림 1-2〉 이행상황점검 구성 및 내용 ····· 3

제2장

〈그림 2-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예산 집행실적 ····· 9
〈그림 2-2〉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집행실적 ····· 19
〈그림 2-3〉 임산물수출사업 예산 집행실적 ····· 24
〈그림 2-4〉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예산 집행실적 ····· 30

1 개요

1.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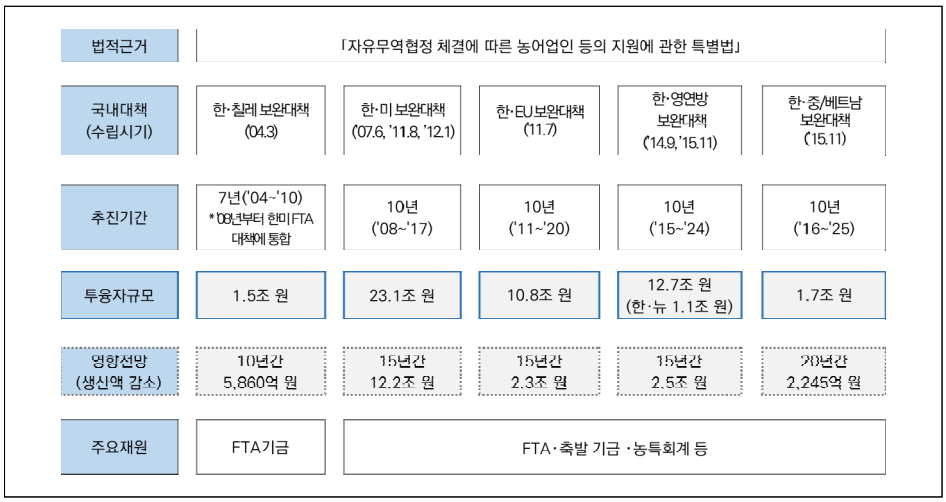
❍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2007년 4월 이후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 규모의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1].

- 2011년에 정부는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한 한·미 FTA 대책 투융자 계획을 발표(1조 원 추가) 했으며, 한·EU FTA의 발효에 앞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 '한·EU FTA 국내보완대책(10조 8천억 원 규모)'을 마련함.[2]

1)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기초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한·영연방(호주, 캐나다)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및 밭작물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11조 6천억 원 규모)'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1조 793억 원 규모)'을 마련[3]했으며,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에 대비하여 각각 1조 5,545억 원, 1,654억 원 규모(2016~2025년)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

〈그림 1-1〉 농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추진 현황



주 1)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은 2004~2010년까지 조성된 1조 2천억 원 규모의 FTA 기금에 지방비 2,800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조 4,800억 원임.
2)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은 '07. 6월 수립되었으며, '11년 변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1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 발표('11. 8월), 이후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함('12.1월).
3)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에 대응하여 '14.9월에 수립되었으며, 이후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15.11월에 수립함. 여기에서는 한·뉴 FTA 국내보완대책의 투융자규모 및 영향분석결과를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포함하여 제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p.10.

2)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2011년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등 기 배정된 지원규모에 2조 원을 추가하여 대책을 마련함.

3)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은 기존의 경쟁력 사업에 2조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은 기존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에 9년간(2016~2024년) 3,523억 원을 증액하여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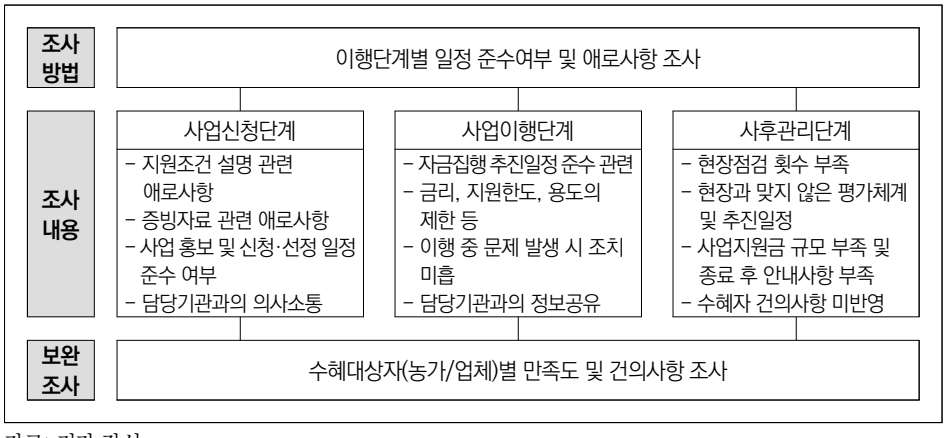
2. 이행상황 점검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89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제3조 3항에 따라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검토하고 있음. 점검결과는 매년 상반기(6월 말)와 하반기(12월 말) 각 1회씩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있음.

- 202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매년 6월 말 보고)은 직전년도인 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예산 집행률, 성과지표, 현장점검 횟수 등 점검지표를 활용한 이행단계별 추진일정 준수여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일정에 대한 수혜대상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조사·점검함.

- 하반기 이행상황점검(매년 12월 말 보고)은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업이행단계 및 추진일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만족도 등 점검지표를 활용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함.

〈그림 1-2〉 이행상황점검 구성 및 내용



자료: 저자 작성.

❍ 202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대상 사업은 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중 생산자조직, 법인 등 수혜대상이 비교적 많지 않지만, 정량적인 사업성과 및 전문가 평가 이외에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함.[4)]

- 이행상황점검 사업(5개): 축산경영종합자금, 원유소비활성화, 농기계임대, 임산물수출, 수출인프라강화
- 이행상황점검 대상(10개): 각 사업별 2개 조사(업체, 농가, 또는 사업 담당자)

〈표 1-1〉 202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조사대상 및 내용

분야	사업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내용
		업체	농가	담당자		
축산경쟁력 제고	축산경영종합자금	2			2021년 4월 26일 ~ 6월 18일	- 단계별 일정 준수여부 및 적합성 - 사업목적에 대한 인지도 및 목적의 타당성 - 사업 만족도 및 이유 - 애로 및 건의사항
	원유소비활성화	2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영안정	농기계임대		2	2		
신성장동력창출	임산물수출	2		1		
	수출인프라강화	2				

주: 각 사업별 조사대상은 축산경영자금 2개 업체(오리2), 원유소비활성화 2개 업체, 농기계임대 2개 농가 및 담당자 2인이며, 임산물수출은 2개 업체 및 담당자 1인과 수출인프라강화는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함.
자료: 저자 작성.

❍ 이행상황점검은 단계별로 크게 ① 사업신청단계, ② 사업이행단계, ③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함.

- 사업신청단계에서는 계획 및 홍보 수립의 적절성,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검토함.
- 사업이행단계에서는 추진일정의 충실성, 상황변화의 대응성, 자금배정 시기의 적절성을 검토함.

4) FTA 국내보완대책 성과분석에서는 ① 매년 사업의 수혜자가 100명 이상이면서, ② 사업예산이 타 사업들에 비해 많고, ③ 수혜 농가가 전국에 분포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수혜 농가의 소득 향상,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성 증가 등 통계학적 방법론을 통해 사업효과 계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유기적이고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검토함.

❍ 또한, 각 사업 목적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시함.

〈표 1-2〉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 점검항목

점검단계	점검항목	점검지표	측정기준
사업신청단계	계획 및 홍보	사업의 홍보 및 신청 계획수립의 적절성	- 사업신청 및 시행계획 안내여부
	신청 및 선정단계	사업신청 및 선정 단계의 적절성 및 효율성	- 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 안내 및 심의일정에 대한 사전안내 여부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및 전년도 수혜자 건의사항 반영여부(사업규모, 지원내역 등)
사업이행단계	시행단계	추진일정의 충실성	- 사업추진 실태 모니터링 여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대한 적시대응 여부 - 정부 예산 편성 안내 여부
	자금배정	자금배정 시기의 적절성	-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상의 자금집행일정 준수 여부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 담당 기관별 역할 수행 여부 - 사업 지원 후 관리 지속성 여부
수혜자 면담 결과		사업 만족도 및 개선사항	

자료: 저자 작성.

❍ 본 보고서는 점검대상 사업별로 사업개요, 사업 이행실적, 이행상황 점검,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됨.

- 사업개요는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 계획(안)」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함.
- 사업 이행실적은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지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이행상황 점검은 사업별 수혜자를 대상으로 2021년 4월~6월까지 실시한

면담조사의 단계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농가)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함(10점 만점).

-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은 면담조사의 사업 인지도 및 만족도, 건의사항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표 1-3〉 점검 내용별 작성 방법 및 참고자료

점검 내용	작성 방법	참고자료
사업개요	선행연구 자료 참고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 계획(안),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사업 이행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이행상황 점검	면담조사 결과 정리	면담조사 결과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자료: 저자 작성.

2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별 이행상황 점검

1. 축산경영종합자금

1.1. 사업개요

○ '축산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은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과 축산계열화사업으로 구분되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브랜드 경영체 생산지원, 운영, 브랜드 판매시설 자금과 계열화에 필요한 생산 기반 시설,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목적은 브랜드경영체의 회원농가 생산지원자금, 브랜드 운영자금, 브랜드 판매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브랜드경영체의 규모화·내실화·차별화를 유도하고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임.
- 축산계열화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을 통해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가공·유통시설 및 사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업목적	1. 브랜드경영체지원 - 브랜드 경영체의 생산단계 HACCP·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및 사육환경 조성·확대 등을 통한 규모화·내실화·차별화를 유도하여 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을 선도할 핵심주체로 육성 - 브랜드 축산물 판매시설 지원을 통한 브랜드육 판매 확보 및 판로 확대 2. 축산계열화 -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사업기간	- '91년 ~ 계속 * 사업명 변경 :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91~'11년) → 축산경영종합자금('12)	
지원내용 (하드/소프트)	1. 브랜드경영체지원 - 브랜드 회원농가의 생산지원자금 지원 -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 지원 - 브랜드 판매시설비 지원 2. 축산계열화 - 계열화사업자 사육·가공·유통시설 및 사육비 지원 - 축산계열화 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자금(운영자금)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대상 및 자격	- (브랜드경영체지원)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한·육우 및 돼지 브랜드 추진 경영체로서 생산 및 유통 기반을 보유한 경영체 - (축산계열화) 닭·오리·염소 계열화사업자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지원) 시·도지사, 농협경제지주 - (축산계열화) 시·도지사	

자료: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1.2. 사업 이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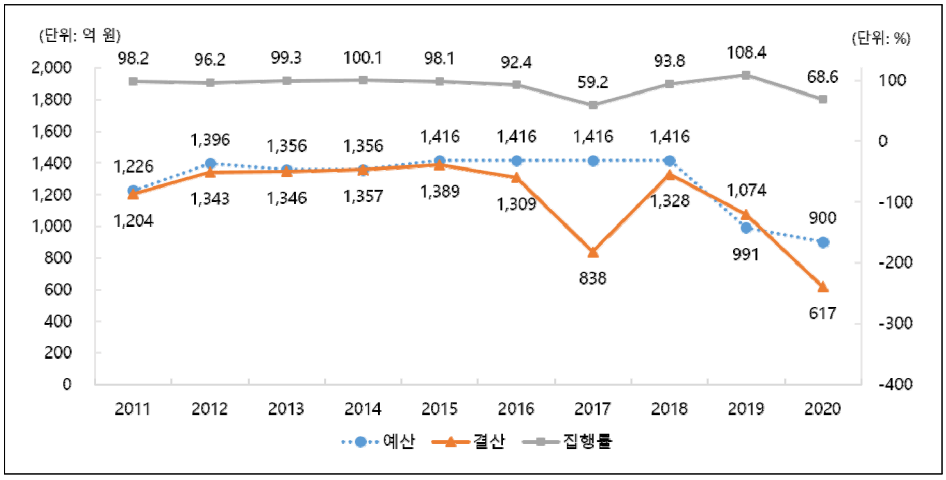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의 예산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해당 사업의 수요 부족 및 지원조건 미달업체의 제외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감소하면서 2019년부터 예산도 감소함(그림 2-1).

- 2011년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의 예산은 1,226억 원으로 1,204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이후 예산은 증가하여 2014~2018년 예산은 1,416억 원까지 증가함. 그러나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자금 미신청으로 인해 2017년에는 예산의 59.2%인 838억 원만 집행되었으며, 2018년에 집행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의 2020년 예산은 900억 원으로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에 659억 원, 축산계열화사업에 241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사업의 수요 부족과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사업 신청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총 617억 원만 집행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함.

〈그림 2-1〉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예산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예산 감소와 COVID-19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임.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축산계열화)'의 주요 성과지표인 '한우브랜드 출하물량'과 '가축(양계) 계열화율'은 2020년 모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표 2-2).

-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의 성과지표인 '한우브랜드 출하물량'은 2016년(3,085두)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년(4,093두) 대비 35.4% 증가한 5,054두로 조사됨.
- 2020년 축산계열화사업의 성과지표인 '가축(양계) 계열화율'은 92.0%로 목표(92.0%)를 100.0% 달성함.

〈표 2-2〉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이행실적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10	2012	2016	2018	2019	2020
축산경영 종합자금	한우브랜드 출하물량 (평균두수)	목표	-	-	2,481	-	-	-	-
		실적	-	-	3,176	3,085	3,732	4,093	5,054
		달성률(%)	-	-	128.0	-	-	-	-
	가축(양계) 계열화율(%)	목표	74.0	80.0	85.0	92.0	92.0	92.0	92.0
		실적	85.0	85.0	91.0	92.0	92.0	95.1	92.0
		달성률(%)	114.9	106.3	107.1	100.0	100.0	103.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3. 이행상황 점검

❍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점검 결과 단계별 이행점수는 **높게**(각각 8점, 8점) 나타남.

❍ '사업신청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의 신청에 대한 안내와 시행계획상의 사업방식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애로사항으로는 직접적인 소통창구의 부재,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사업 신청 불가 등으로 나타남.

- 수혜 업체들은 축산계열화사업의 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계획상의 사업방식은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됨.

- 사업신청단계의 애로사항은 사업시행주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보다는 협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와 수혜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상반기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 사업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남은 예산에 대해 추가적인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건의함.

❍ '사업이행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존재하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됨. 애로사항으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는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축산계열화사업 수혜 업체는 사업시행기관인 지자체를 통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도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음.
- 애로사항으로 중소업체는 축산계열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자금을 배정받아도 융자에 대한 담보 비율이 높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담보비율에 대한 조정을 건의함.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축산계열화사업 수혜 후 수혜 업체는 지자체를 통해 사업비 집행 내역 정산 등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행기관은 수혜 업체에게 지원금의 사용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지원금 정산은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외 시장상황의 악화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수혜의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점만 고려함으로써 다음 년도 수혜 업체로 선정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개별 업체 상황이 아닌 전반적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함.

〈표 2-3〉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이행단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주체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보다는 협회를 통해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기 때문에 건의에 대한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따라서 직접적인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함. - 상반기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 신청 및 선정 후에도 사업 예산이 남아있다면, 남은 예산에 대해 하반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이행단계	- 자금이 배정되어도 규모가 작은 업체는 담보가 부족해 배정받은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다양한 부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함.
사후관리단계	- 사업지원금을 통해 생산을 했으나 시장 상황이 열악하여 손실이 발생함. 그러나 다음 년도 업체 선정에는 시장 악화가 반영되지 않아 수혜업체로 선정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업계 현실을 반영한 평가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주: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 사업수혜를 받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1.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인지도 및 만족도

❍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 수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모든 조사업체가 사업의 목적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 현재의 사업 목적이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함.

❍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 수혜 업체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점, 8점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

- 수혜 업체는 축산경영종합자금(축산계열화)사업이 수익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어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개선사항

❍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정부 지원 자금 활용을 위해 정부지급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건의함.

- 중소기업이 정부의 융자 사업을 신청하여 수혜하는 경우, 담보 문제로 인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정부의 보증 또는 농신보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하기를 건의함.

- 현행 지원자격 및 요건 상에서는 축산계열화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여 벌칙,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으면 지원에서 제외되어 자금 신청이 불가능함.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원 제외 요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2. 원유소비활성화

2.1. 사업개요

❍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

하고 국산 유가공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유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치즈 등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통판매, 시장개척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2-4〉 원유소비활성화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목적	- 국산원유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 활성화로 FTA 확대 등 개방화에 따른 국내 원유수급안정에 기여하고 국산 유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사업기간	- '16~'24년	
지원내용 (하드/소프트)	- 치즈 등 국산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국내산 원유 구입비, 유통·판매, 시장 개척비, 제품 및 브랜드 개발비, R&D,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소프트웨어
지원대상 및 자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자	
사업시행주체	- 낙농진흥회	

자료: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

2.2. 사업 이행실적

○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의 예산은 2016년부터 매년 100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매년 100% 집행됨.

○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의 성과지표인 '치즈 생산용 국산원유 투입량'의 2020년 목표는 3만 8천 톤이며, 수입산 치즈의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100.0% 달성함(표 2-5).

〈표 2-5〉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이행실적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10	2012	2016	2018	2019	2020
원유소비 활성화	치즈생산용 국산원유 투입량 (톤)	목표	-	-	-	55,000	47,000	42,000	38,000
		실적	-	-	-	46,498	39,000	32,000	38,000
		달성률(%)	-	-	-	84.5	83.0	76.2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3. 이행상황 점검

❍ ‘원유소비활성화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점검 결과 단계별 이행점수는 **높게** 나타남(각각 7점, 8점).

❍ ‘사업신청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의 신청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사업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졌음. 애로사항으로는 신청 및 정산 절차 중 비효율적인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 업체들은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의 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대상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함.
- 사업 신청서에 향후 전망 등 일부 사업시행과 연관성이 낮은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이행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존재하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해결됨. 애로사항으로는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는 지원 금액이 적어 다방면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수혜 업체는 사업시행기관인 낙농진흥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원유 구입, 사용량, 분유 생산 등을 모니터링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도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응답함.
- 애로사항으로 중소업체는 원유소비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자금을 배정받아도 지원자금의 규모가 작아 국내산 원유 구입을 제외한 R&D, 광고·홍보, 시장개척비 등에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수혜 후 수혜업체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보고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업체는 사업시행기관에게 지원금의 사용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사업자금 용도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2-6〉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이행단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시 서류과정이 복잡하진 않으나 사업대상 선정과정의 중간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세부금액, 신청 금액 절감 이유)이 필요하며 사업신청 시 향후 전망을 예측하여 작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사업이행단계	- 사업 지원이 수혜업체에 도움은 되지만 이자율이 높아 실질적인 혜택이 없음.
	- 다양한 부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함.
사후관리단계	- 수혜 후 만족도 조사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생산자까지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함.

주: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사업수혜를 받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인지도 및 만족도

○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수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업체가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음.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COVID-19로 인한 유제품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잉여원유를 일정 수준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므로 현재의 사업 목적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함.

○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수혜 업체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점, 8점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수혜 업체는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유질 개선으로 국내산 원유 상품의 품질개선에 도움이 되어서 해당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개선사항

❍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지원은 유가공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지만, 원유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금액은 수혜 업체의 원유구입비의 1~4% 수준에 그침. 지원 규모 증액은 잉여 원유의 활용성 증대와 국내산 가공 유제품 점유율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은 융자 지원으로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근과 같이 시장금리가 낮은 경우, 지원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 농협중앙회의 경우 1년 정기예탁금 금리가 연 1%대 또는 무이자와 같이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자금 지원을 해줌. 이와 비교하면 원유소비활성화사업은 고정금리로써 결과적으로는 큰 혜택이 없기에 '고정금리 50%, 시중변동금리 50%'와 같이 수혜 업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융자조건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농기계 임대

3.1. 사업개요

❍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

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여성친화형농기계,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등을 지원함.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의 경우 임대농기계의 구입,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 구축, 임대농기계 수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함. 여성친화형농기계 사업은 여성친화형농기계와 편이장비 구입을 지원함.
- 주신지일관기계화 사업은 작물별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며,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은 우수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비용을 지원함.

〈표 2-7〉 농기계임대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업목적	-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지원내용 (하드/소프트)	-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임대 농기계 구입, 임대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농기계 보관창고 및 정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비	하드웨어
지원대상 및 자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한 임대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자료: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

3.2. 사업 이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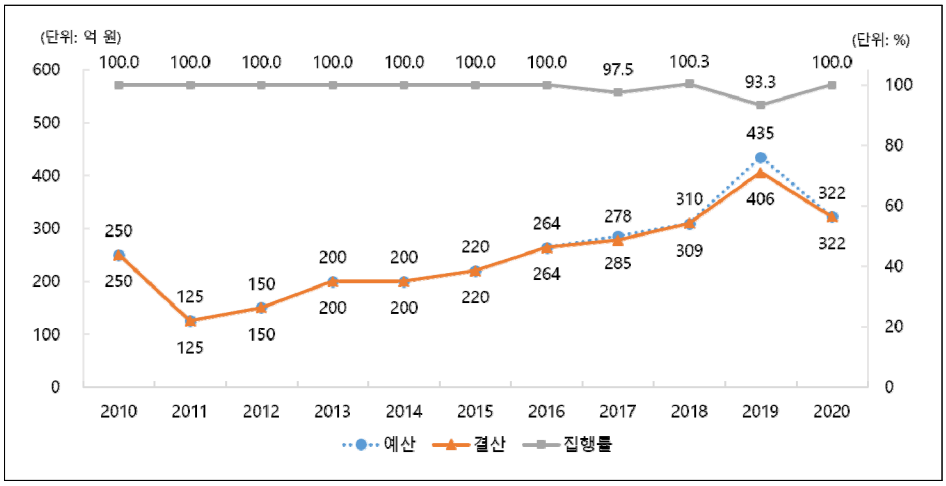
❍ '농기계임대사업'의 예산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여 2019년 예산은 43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 축소로 2020년 예산은 322억 원임(그림 2-2).

- 2011년 '농기계임대사업'의 예산은 125억 원으로 예산의 100%가 집행되었으며, 이후 예산은 증가하여 2019년 예산은 435억 원까지 증가하였으

나 2019년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신속 대응을 위해 일부 예산이 전용되어 406억 원이 집행됨.

- 2020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세부사업인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과 노후농기계대체사업의 예산이 감소하면서 예산은 322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전액 집행됨.

〈그림 2-2〉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농기계임대사업'의 성과지표인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 및 '농기계 이용률' 실적은 2010년 대비 2020년 80% 이상 증가함(표 2-8).

-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는 2010년 5만 5천 호에서 2020년 28만 6천 호로 약 420%가 증가했으며, '농기계 이용률'은 2010년 7일에서 2020년 12.9일로 약 8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농기계임대사업 이행실적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10	2012	2016	2018	2019	2020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 수(천 호)	목표	20	52	105	230	265	275	285
		실적	36	55	110	236	268	276	286
		달성률(%)	180.0	105.8	104.8	102.6	101.1	100.4	100.4
	농기계 이용률 (일/대)	목표	-	6.6	8.0	11.9	12.7	12.8	12.9
		실적	-	7.0	8.3	12.0	12.7	12.8	12.9
		달성률(%)	-	106.1	103.8	100.8	100.0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3.3. 이행상황 점검

○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점검 결과 단계별 이행점수는 **높게**(각각 9점, 9점) 나타남.

○ '사업신청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농기계임대사업의 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와 사업방식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지역별 주요 생산품목을 고려한 농기계 확보를 건의함.

- 수혜 농가들은 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교육을 통해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나 사업방식에 대하여 효율적이라고 응답함.
- 그러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따라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기계가 구비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논농사용 농기계는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다양한 농기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이 조사됨.

○ '사업이행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으

며 사업지원규모는 적절하였음. 다만, 임대 농기계 배송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현재의 사업지원규모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건의사항으로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를 경작지까지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농기계 운송을 해주더라도 배송여건이 제한적임.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주요 건의사항은 주기적인 농기계 수리 및 관리 도입과 건의창구 개설 등으로 나타남.

- 농기계를 임대하기 전 고장난 농기계에 대해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간혹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기적인 농기계 수리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표 2-9〉 농기계임대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이행단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필요한 농기계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음. 지역별 농가 수요에 맞는 다양한 농기계 구비가 필요함.
사업이행단계	-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 농기계를 경작지까지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운송을 해주더라도 배송여건이 제한됨에 따라 농기계 배송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단계	- 농기계 임대 전 고장난 기계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간혹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농기계 수리 및 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함. -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가 부재하므로 건의창구 개설이 필요함.

주: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수혜를 받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3.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인지도 및 만족도

❍ ‘농기계임대사업’ 수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기관과 이용농가 모두 사업의 목적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현재의 사업 목적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함.

❍ ‘농기계임대사업’에 참여한 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혜 농가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각각 9점, 10점)하는 것으로 조사됨.

-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사업을 통해 필요한 농기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농기계 안전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드론, 굴삭기, 지게차 등 다양한 농기계에 대한 사용교육은 농가들의 노동력과 노동 시간 절감 등에 기여하고, 고령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농기계임대사업을 통해 완화하여 농가 경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됨.

나) 개선사항

❍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지역 사정에 맞게 농기계가 구입되어 있지만, 농기계 활용 시기가 겹침에 따라 일부 농가는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지역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로 수요가 높은 농기계의 추가적인 구입 또는 지역 간 농기계 교차 활용 등을 건의함.

- 지역에 따라 영농시기가 비슷하여 농기계를 임대하는 시기도 겹치게 되는

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비치되어 있는 농기계의 추가 구입이 요구됨. 또는 지역별 농기계 사용 시점이 일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지역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기관의 연계를 통한 농기계 활용성 증대도 고려할 수 있음.

4. 임산물 수출

4.1. 사업개요

○ '임산물수출사업'은 임산물 판매촉진,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및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물의 수출기반을 확립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임산물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함.

〈표 2-10〉 임산물수출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업목적	- 임산물 수출기반 확립 및 해외시장개척, 수출활성화를 통해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기간	- '98년 ~ 계속	
지원내용 (하드/소프트)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 임산물 판매촉진,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안전성관리, 수출기계장비 - 해외시장개척 사업 : 해외판촉전, 해외수출홍보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 - 수출기반구축 사업 : 수출선도조직·수출협의회 및 수출특화지역 육성	소프트웨어
지원대상 및 자격	- 임산물 수출업체	
사업시행주체	-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자료: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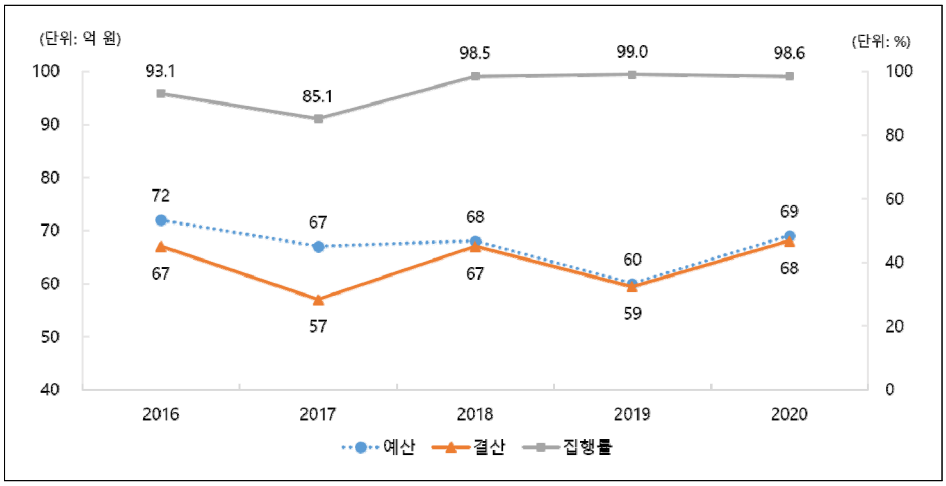
4.2. 사업 이행실적

❍ 한·중 FTA 대책인 '임산물수출사업'의 예산은 2016년 72억 원에서 2020년 69억 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집행률은 증가하여 2016년엔 예산의 93.1%인 67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예산의 99.8%인 68억 원이 집행됨(그림 2-3).

❍ '임산물수출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부터 시작된 국내산 임산물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표 2-11).

-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은 2016년 10.5%에서 2018년 20.1%까지 증가하였으나, 2019년부터 기상 악화로 인한 국내 임산물 생산량 감소, COVID-19로 이한 임산물 수요 위축과 수출 제한 등의 수출 악재로 인해 수출실적이 감소함.

〈그림 2-3〉 임산물수출사업 예산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11〉 임산물수출사업 이행실적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10	2012	2016	2018	2019	2020
임산물수출	임산물 수출액 증가율(%)	목표	-	-	-	5.0	5.0	5.0	5.0
		실적	-	-	-	10.5	20.1	-9.1	-18.8
		달성률(%)	-	-	-	210.0	402.0	-182.0	-376.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4.3. 이행상황 점검

○ '임산물수출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점검 결과 단계별 이행점수는 **높게**(각각 8점, 9점) 나타남.

○ '사업신청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임산물수출사업의 사업신청에 대한 안내와 사업대상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 부족과 업체별 특성에 맞지 않은 지원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혜 업체들은 사업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사업대상의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함.
- 그러나 사업신청에 대한 안내는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안내 메일 1회 발송 이후 추가적인 사업신청 안내가 없어 사업신청 기간이 충분함에도 홍보가 덜 되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임산물 수출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 '사업이행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추진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존재하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으

로 조사됨. 애로사항으로는 2020년부터 일부 세부사업의 지원 조건이 변경되면서 지원 규모가 작아져 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관련 설비를 구매하면 사업시행기관에서 구매한 설비에 대하여 중간 점검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업시행기관에 말하면 신속하게 해결됨. 또한 사업자금도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남.
- 애로사항으로는 업체들의 규모별 지원 금액 축소로 인한 일부 업체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나타남. 국내 단기임산물은 중국산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수출 물류비 지원을 통해 수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그러나 2020년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수출규모가 큰 업체들의 물류비 지원 금액을 축소하여 수출 시 비용부담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평가가 객관적이고 현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건의사항은 정산시스템의 단순화로 조사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평가가 시행되기 한 달 전쯤 업체로 연락하여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며, 업체들은 사업평가의 계획 및 기준이 객관적이며 현장 중심적인 것으로 조사됨.
- 임산물수출사업의 정산시스템이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정산절차가 편해졌지만, e-나라도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여전히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산시스템을 현재 수준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표 2-12〉 임산물수출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이행단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에 대한 안내 메일 1회 발송 이후 사업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임산물수출 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사업이행단계	- 2020년부터 형평성을 이유로 수출 규모가 큰 업체들의 물류비 지원금액을 축소하여 수출 시 비용부담을 겪음.
사후관리단계	- 정산시스템이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정산절차가 편리해졌지만, e-나라도움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정산시스템을 현재 수준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주: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임산물수출 사업수혜를 받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4.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인지도 및 만족도

❍ '임산물수출사업' 수혜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업체가 사업의 목적을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임산물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어 현재의 사업 목적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함.

❍ '임산물수출사업'의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혜 업체는 임산물수출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각각 8점, 8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임산물수출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수혜를 통해 수출 물류비, 검역비, 수출이력관리비 등 수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업체의 수출 비중 확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해당 사업의 세부사업 중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선정되기에는 어려우나 '임산물수출사업' 중 자금 사용범위가 가장 넓은 편이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됨.

나) 개선사항

○ (단기임산물 특화사업 확대) 농업 분야의 지원 사업은 다양한데 반해, 임업 분야 지원 사업은 규모가 적을뿐만 아니라 목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단기임산물 지원 사업의 종류는 적고 규모도 작은 편임. 따라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단기임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임산물 특화사업 확대를 건의함.

○ (수출선도기업 육성) 현재 임산물 수출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수출선도기업을 육성하여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임산물수출사업 통합지원화) 현행 임산물 관련 지원 사업은 시행기관만 다를 뿐 지원내용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 또한 임산물 수출업체가 임산물수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각 사업별로 신청하게 되어있어 사업 신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통합지원화를 통해 신청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5. 수출인프라강화

5.1. 사업개요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 지원과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해외정보조사, 수출농식품콜드체인구축, 농식품수출홍보, 민관수출협의체운영, 외식산업수출지원 등 5가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해외정보조사 사업은 해외정보조사·전파, 수출홍보사이트를 지원하며, 수출농식품콜드체인구축 사업은 해외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구축을 지원함.
- 농식품수출홍보 사업은 농식품 홍보관, 국제박람회, 바이어초청 및 K-FOOD 페어, 안테나숍, 해외판촉 등을 지원함.
- 또한 수출개척협의회 등 민관수출협의체운영을 지원하며, 외식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표 2-13〉 수출인프라강화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 고
사업목적	- 체계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 지원으로 안정적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 수출 경영체에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 및 맞춤형 수출 정보 제공 - 해외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사업명 변경 : 박람회참가사업('88~'94) → 해외시장개척사업('95~'14), 글로벌 K-Food Fair('13~'14)→ 수출인프라 강화('15~)	
지원내용 (하드/소프트)	- 수출거래선 발굴, 체험·미디어 홍보, 해외정보조사, 민·관 수출협의체 운영 등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소프트웨어
지원대상 및 자격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지자체보조(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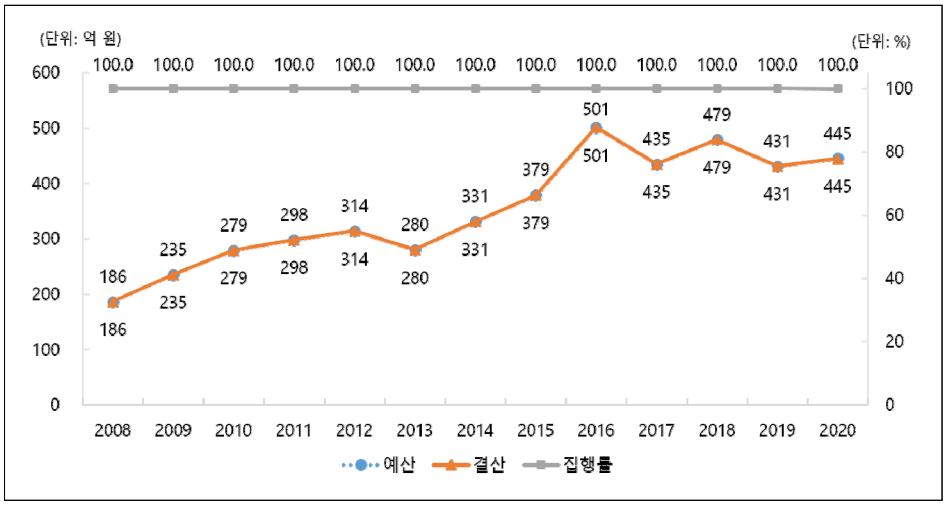
자료: 2021년도 FTA 대책 농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안), 2020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5.2. 사업 이행실적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한·미 FTA 및 한·중 FTA 대책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08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그림 2-4).

- 2008년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예산은 186억 원으로 이후 예산은 증가하여 2020년에는 445억 원이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매년 100% 집행됨

〈그림 2-4〉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예산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함(표 2-14).

- ‘농식품 수출액’은 2016년 64억 7천만 달러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75억 7천만 달러로 목표치(72억 1천만 달러) 대비 105.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이행실적

사업명	지표명	달성률	2008	2010	2012	2016	2018	2019	2020
수출인프라 강화	농식품 수출액 (억 달러)	목표	-	-	-	81.0	70.9	71.0	72.1
		실적	-	-	-	64.7	69.3	70.3	75.7
		달성률(%)	-	-	-	79.9	97.7	99.0	10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5.3. 이행상황 점검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점검 결과 단계별 이행점수는 **높게**(각각 8점, 9점) 나타남.

○ '사업신청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사업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많고 사업 미선정 요인에 대한 확인 과정이 요구됨.

- 해당 사업 수혜 업체들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메일을 통해 사업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었으며, 사업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도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사업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및 평가 가점을 위한 서류 등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또한 현재는 선정결과 발표 시 선정 여부에 대해서만 알려주기 때문에 미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도 함께 안내해준다면 선정되지 못한 업체라 하더라도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업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 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사업이행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었으며, 사업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애로사항은 탄력적이지 못한 사업자금 사용으로 조사됨.

- 사업추진 시 사업주관기관에서 수혜업체별로 중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자금배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지원 규모는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함.
- 다만, 애로사항은 사업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는 지원 항목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모든 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배분하여 사용해야 함. 그러나 업체에 따라 집중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사후관리단계’에서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사업주관기관의 역할은 적절히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건의사항은 정산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조사됨.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신청에 대한 안내, 사업이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사업이행 중간 모니터링 등 주관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현행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정산이 가능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산 절차 간소화를 건의함.

〈표 2-15〉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점검결과 및 이행단계별 애로사항

이행단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사업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간소화가 필요함. - 사업대상 선정결과 발표 시 현재는 선정 여부만 알려주고 있는데, 미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미선정 사유를 알려준다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음.
사업이행단계	- 현재는 지원 항목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으면 모든 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배분하여 사용해야 함. 그러나 업체에 따라 집중하고 싶은 항목이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사후관리단계	- 현행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은 정산 절차가 복잡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주: 점검결과 점수는 조사대상 업체가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체크리스트 중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수혜를 받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5.4.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가) 인지도 및 만족도

❍ '수출인프라강화사업' 수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업체가 사업의 목적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 해당 사업 수혜를 통해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어 현재의 사업 목적은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응답함.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 수혜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혜 업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각각 9점, 9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수혜는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고, 수출 물류비, 해외시장개척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게 조사됨.

나) 개선사항

❍ 농식품 해외 바이어와 수혜업체 간의 연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약 성립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추진이 필요함.

- 현재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은 해외 바이어와 매칭만 시켜주어 매칭 이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중간에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음. 현실적으로 모든 매칭이 계약으로 이어질 수는 없으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수혜업체가 관심 있는 바이어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요청함.

3 점검결과 요약

1.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결과요약

❍ 202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은 5개 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원유소비활성화, 농기계임대, 임산물수출, 수출인프라강화)의 수혜 업체(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이행상황점검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면담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행상황 단계별 일정 준수여부 및 적합성, 사업목적에 대한 인지도 및 목적의 타당성, 사업 만족도 및 이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상반기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상황점검 결과, 5개 사업(축산경영종합자금, 원유소비활성화, 농기계임대, 임산물수출, 수출인프라강화)에 점검 결과 총 10개의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점수는 평균 8.3점으로 높게 나타남.

-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으로 사업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음.[5)]

- 모든 사업의 수혜자들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이행단계별 점검결과,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사업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와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며, 사업이행단계에서는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의 신속한 해결'과 '계획적인 사업자금의 집행'으로 나타남.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적절한 사업담당 기관별 역할 수행'으로 조사됨.

❍ 이행단계(사업신청단계, 사업이행단계, 사후관리단계)별 공통적인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신청 조건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사업 신청에 대한 홍보 강화', '지원 규모 확대', '정산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조사됨.

〈표 3-1〉 2021년 상반기 이행상황점검 결과 요약

구 분		평균	축산경영종합자금 (가축계열화)		원유소비 활성화		농기계임대		임산물수출		수출인프라 강화	
점검결과		8.3	8	8	7	8	9	9	8	9	8	9
단계별 점검 결과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 및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사업대상 선정결과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짐.										
	사업이행단계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은 신속하게 해결되며, 사업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됨.										
	사후관리단계	- 사업담당 기관별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됨.										
단계별 애로 및 건의사항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신청 관련 서류 준비과정에서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됨.										
	사업신청단계	- 사업신청에 대한 안내 메일 1회 발송 이후 사업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가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 업체들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업이행단계	- 다양한 부분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확대가 필요함.										
	사후관리단계	- 정산 절차가 복잡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경영종합자금(2개 업체), 원유소비활성화(2개 업체), 농기계임대(2개 농가), 임산물수출(2개 업체), 수출인프라강화(2개 업체) 사업수혜를 받은 8개 업체 및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5) 축산경영종합자금사업의 경우 사업 수요 부족과 지원조건 미충족 사업체의 제외로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예산 집행률은 68.6%임.